

# 임업인도 내년부터 직불금 받는다

### ‘임업직불제’ 국회 통과 내년 10월 시행...연간 직불금 120만원

### 광주·전남 경영체 등록 3488건...가구당 4.5% 소득향상 기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이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인은 전국적으로 2만8000명 가량으로, 전남에서는 12.5% 비중을 차지한다. 연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직불금은 120만원 정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참여 여부가 임업직불제 안착을 위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해남·완도·진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임가소득은 3863만2000원으로, 전년(3905만8000원)보다 1.1%(-42만6000원) 감소했다.

전남 임가소득은 전국 평균 임가소득(2018년 3648만원·2019년 375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어가소득에 비해서는 매년 낮다.

2019년 기준 전남 농가소득은 3932만원으로, 같은 해 임가소득보다 68만8000원 많았다.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842만원으로, 978만3000원 차이가 났다.

산림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임업인들의 소득은 다른 농가·어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한 명이 입는 혜택은 연간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서 회수되는 가치는 가시적으로 따지면 약 8조원으로, 석재와 입목(立木) 축적 가치를 제외하면 3조원으로 줄어든다.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임업직불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3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익직접지불제인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분야의 면적 직불금과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설정하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휴경 중인 산지나 일시적 채취행위에 사용된 산지는 제외한다.

신설된 제도를 통해 직불금을 받는 임업인은 전체 5만5000명 가운데 2만8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임가소득은 가구당 4.5%가 향상(가구당 167만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등록을 마친 임업경영체는 총 348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30건이 임업경영체로 등록됐으며, 전남 시·군별로 보면 순천(978건·28.0%)과 광양(804건·23.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례(616건), 곡성(168건), 보성(153건), 광주(130건), 담양(93건), 화순(88건), 장흥(70건), 고흥(60건), 여수(57건), 해남(55건), 영광(53건), 강진(37건), 장성(32건), 나주(28건), 영암(19건), 함평(13건), 신안·목포(11건), 무안(10건), 완도(8건), 진도(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철호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은 불리했던 산림경영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산림경영시대를 여는 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신설된 법안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점과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임업 사업주가 직불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는 해결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찬바람 불면 흑산도 홍어에 막걸리**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신안 흑산도 홍어(6kg 이상 36만원)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찬바람 부는 ‘홍탁’의 계절을 맞아 오는 12월2일까지 흑산도 홍어와 국내산 홍어(5kg 이상 18만원)를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청년농 안착 돕는다”

### 공공임대 농지매입 대상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 농지 임대 공급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는 신규 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혀왔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를 매입대상에 포함해왔다. 또 농업인 소유의 농지에서 8년 자경 후 이농한 자 및 상속인의 농지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9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완료된 우량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해 청년농에게 농지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전년도 집행액인 5600억 원을 초과한 자금을 투입해 연말까지 청년농 등이 선호하는 농지를 우선 매입해 임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남농협은 최근 ‘도농상생기금 전달식’을 열고 현산농협에 15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광주 하남농협-해남 현산농협 도농상생 1500만원

광주 도시농협인 하남농협이 해남 현산농협에 도농상생기금 1500만원을 전했다.

두 농협은 최근 현산농협에서 ‘도농상생기금 전달식’을 열고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짐했다.

현산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을 농업인 영농활동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와 육묘, 종자를 구입하는 데 쓸

방침이다.

나왕수 하남농협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농협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김장철 식품안전 점검·김장재료 할인

### 내달 8일까지 최대 25% 할인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농협 광주점사국은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식품안전 합동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은 김장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김장채소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광주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김장용 젓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사항 ▲무신고 제품 확인 ▲원산지 표시 사항 ▲고춧가루(건고추) 원산지 및 식품표시 사항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지도 받는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판매장에 대해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김장철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는 김장재료를 최대 25% 할인 판매하는 ‘하나로 명품김장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절임배추,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품목과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부재료를 최대 2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다발무, 쪽파, 젓갈 등 일부 품목은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뎐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